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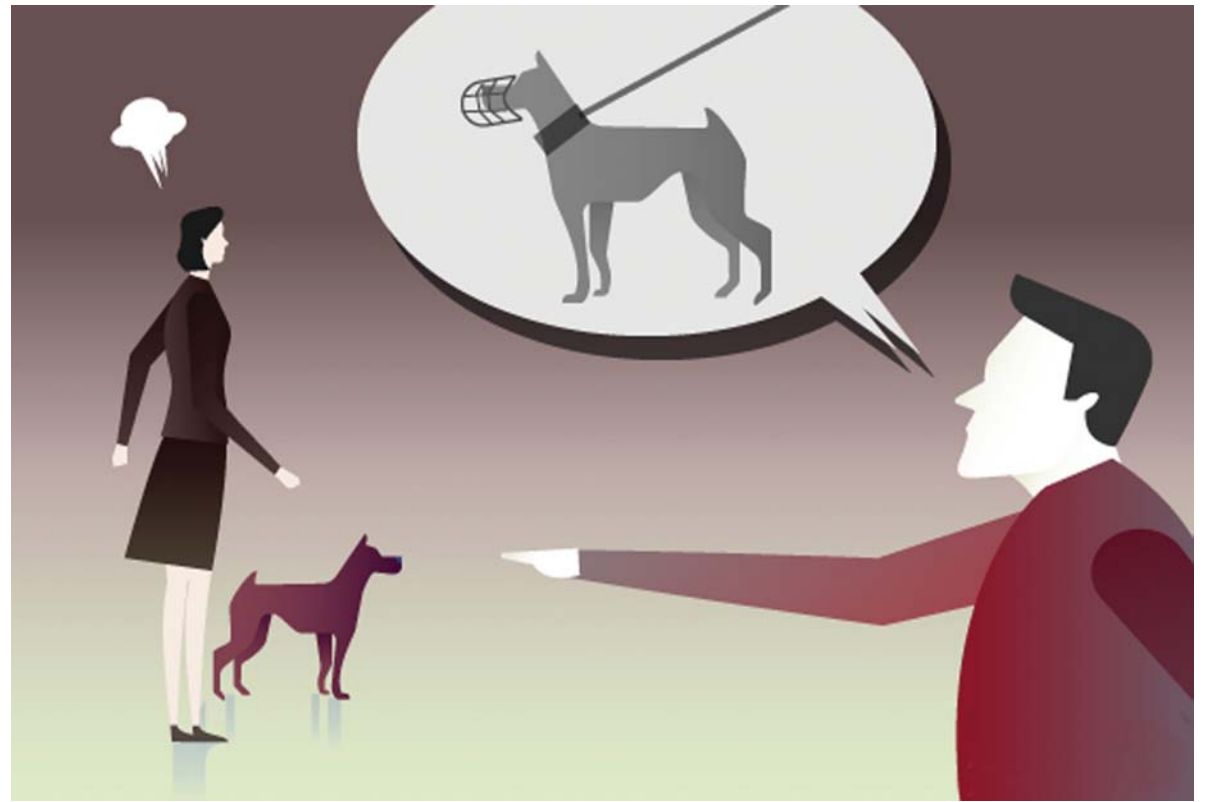
“개가 짖으면 교육을 하세요”...반려인 질책한 반려인들

애견인 모인 SNS에 강아지 짖는다고 민원 들어와 고민 글 올라와 상당수 회원 “자식이니까 예뻐보이지 남들에게 그냥 소음” 등 비판

강아지가 짖는다고 민원이 들어와 고민이라는 반려인에게 교육을 시키라며 또 다른 반려인들이 질책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애견인들만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고 민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짖지 말라고 해서 안 짖는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가 짖지 그럼 말을 할까. 내가 너무 맘중이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같은 애견인끼리 공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틀 본 다른 회원들의 상당수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우리 아래층도 엄청 짖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다.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고 키우라” “자식이니까 짖는 것도 예뻐 보이지, 남들이 들으면 그냥 소음이다. 민원 들어왔으면 조치 취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모든 강아지가 민원 들어올 정도로 짖진 않는다” 등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짖기 훈련을 시키면 된다” “현관문 방음재가 도움이 된다” “짖음방지

패드니 잘 안 짖는다. 안 되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등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애견인들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인식과 꾸준한 펫티켓 교육 등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회원들은 “맘중 맞다” 등 지나친 비난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해 조언을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빼빼로데이에 먹는 초콜릿 과자, 강아지에게는 ‘독’

테오브로민 성분 중독 증상

매년 11월 11일은 연인끼리 초콜릿이 든 과자를 선물한다는 빼빼로데이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주름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다크 초콜릿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음식도 강아지(반려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콜릿이다. 11일 수의계에 따르면 강아지들이 독성이 있는 음식을 삼켰다가 병원을 많이 찾는 시기가 있다. 추석 직후와 밸런타인데이다. 각각 포도와 초콜릿을 먹고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신세를 진다. 여기에 빼빼로데이에도 초콜릿 과자를 삼킨 강아지들이 병원에 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빼빼로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다.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사람에게는 기침 완화에 도움을 주



도 하지만 자칫 강아지들이 먹게 됐을 때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보통 카카오의 농도가 높은 초콜릿일수록 중독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사람은 테오브로민 성분을 분해할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강아지들이 초콜릿을 먹게 되면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부정맥을 동반한 과도한 흥분 상태로 심장에 무리가 오고, 고체온증과 더 나아가서는 혼수상태를 거쳐 무지개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이에 수의사들은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냉장고나 높은 선반 등에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 윤원경 수호천사동물병원장은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난 뒤 1시간에서 4시간 내 증상이 발생하므로 발견 즉시 최대한 빠르게 동물병원에서 응급처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해독제는 없으며 위를 세척하고 임원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애초 보관을 잘해서 강아지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귀엽죠?”...삼성전자 모델도 이제는 반려동물 시대

유기견·길고양이 출신 동물 모델 등장 ‘훈훈’



무풍큐브의 모델로 나선 요피

삼성전자가 최근 SNS를 통해 ‘삼성슈스펫가전’ 화보를 공개한 가운데 유기견과 길고양이 출신 동물 모델들이 등장해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삼성슈스펫가전 이벤트를 진행해 삼성전자 제품과 함께 화보를 찍을 수 있는 반려동물 화보 촬영권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사연이 당첨된 강아지, 고양이의 화보가



삼성 제트의 모델로 나선 애옹이와 노리

공개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화보 속 제품들은 에어드레서, 그랑데, 무풍큐브, 삼성제트 등으로, 사람 대신 반려동물들이 제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귀여운 모습을 선보였다.

강아지 요피는 삼성전자의 무풍큐브 모델로 나섰다. 요피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강아지로, 폐렴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신랄할 수 없다는 사연을 갖고 있다.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무풍큐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또 다른 화보의 주인공인 고양이 애옹이와 노리는 길고양이 입양터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이다. 털이 많이 날리는 고양이 특성에 맞춰 애옹이와 노리는 청소기 제품인 삼성 제트의 모델이 됐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품이 필요한 사연을 가진 반려동물들을 모델로 선정했다. 이 덕분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반려가구에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홍보할 기회가 됐다. 이는 전체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 반려인구 증가를 의식해 반려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